

1-27. 한국산 뽕나무깍지벌레속(진딧물아목, 깍지벌레과)에 대하여

권기면*, 한만중, 이승환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뽕나무깍지벌레속(*Pseudaulacaspis* MacGillivray, 1921)은 농작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백(1978)에 의해 식나무깍지벌레(*P. cockerelli* (Cooley, 1897)), 뽕나무깍지벌레(*P. pentagona* (Targioni Tozzetti, 1886)), 그리고 뽕나무깍지벌레(*P. prunicola* (Maskell, 1894)) 3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속은 기주 범위가 넓고, 기주식물과 기생 부위에 따라 깍지 모양에 변이가 심하다. 특히 뽕나무깍지벌레와 뽕나무깍지벌레는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종종 오동정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뽕나무깍지벌레속의 3종을 보다 쉽게 동정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600여점의 표본을 확인하고, 그들의 형태적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기주식물과 검색표를 작성하였다. 뽕나무깍지벌레속은 깍지 모양과 성충의 형태, 그리고 밑판에 있는 샘가시의 개수와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나무깍지벌레는 감나무, 오미자, 주목 등의 25종의 식물에서, 뽕나무깍지벌레는 뽕나무, 참다래, 구기자 등의 22종의 식물에서, 그리고 뽕나무깍지벌레는 뽕나무, 살구, 자두 등의 16종의 식물에서 채집되었다.